

H2KOREA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4.5.14 H2KOREA 정책지원실 -

- ◇ 작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I. 국내

□ 정부

- 네덜란드 '세계수소서밋'서 한국관 첫 운영('24.5.13, 연합뉴스)
 -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3~15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'세계 수소 서밋' 현장에서 한국 수소기업 홍보·상담관을 운영한다고 밝힘

□ 기관

- KR, LNG·액화수소 등 안전저장 단열시스템 분석('24.5.13, 신소재경제신문)
 - KR이 선박 내 LNG, 액화수소 등 극저온 화물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단열시스템 설계 기술 가이드를 제시
 - 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는 선박에 적용되는 -163°C 의 LNG용 단열시스템과 -253°C 의 액화수소용 단열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, 이들 시스템의 열전달 메커니즘 등 설계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 분석이 담겨 있음

□ 기획/인터뷰/사설

-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'제주'('24.5.13, 투데이에너지)
- 장봉재 한국청정메탄올·수소산업협회 회장('24.5.13, 투데이에너지)
- 강정구 한국천연가스·수소충전협회 회장('24.5.13, 투데이에너지)
- 수소산업에 거는 기대('24.5.13, 투데이에너지)

II. 해외

□ 산업계


- 중국 CASC, 최초 100kg급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 개발(24.5.12, MENAFN)
 -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(CASC)는 중국 최초로 100kg급 대형차량용 액화수소 저장·공급 시스템 개발에 성공
 - 이 시스템은 대형차량에 1회 충전시 최소 1,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장함
 -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성능과 실효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
- 독일 기업 DHL社-남아공 SASOL社, 지속가능 항공기연료 프로젝트 사업 공동추진(24.5.12, Reuters)
 - 독일 물류 대기업 회사 DHL과 남아공 석유화학 회사 SASOL은 독일 내 지속가능항공연료(SAF) 생산 확대를 위해 공동 이니셔티브 설립에 합의
 - 독일 동부지역에서 연간 최소 20만 톤, 최대 50만 톤 생산 SAF 공장을 구축할 예정
 - DHL은 2030년까지 독일 내 SAF 생산을 실현하고, SASOL은 2030년까지 30% 탄소 감축하는 것이 목표

「수소에너지 현장으로 찾아가는 “수소ANSWER” 시즌2」 바로보기
 <매달 공개, 산업부 유튜브 채널>

<p>🎯 <u>1화 인천 수소생산기지편</u> <u>“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존재한다고!”</u></p>	
<p>🎯 <u>2화 여수 수소출하센터편</u> <u>“현장에서 직접 알아보는 수소출하센터의 모든 것!”</u></p>	
<p>🎯 <u>3화 원자력 청정수소편</u> <u>“깨끗한 수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구!”</u></p>	
<p>🎯 <u>4화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편</u> <u>“수소를 활용한 도심 속 발전소가 있다?!”</u></p>	
<p>🎯 <u>5화 H2MEET 편</u> <u>“세계 최대 수소산업 전시회를 한국에서?!”</u></p>	
<p>🎯 <u>6화 수소의 날 편</u> <u>“수소경제 활성화! 우리 함께 열심히 했다고요!”</u></p>	
<p>🎯 <u>7화 제주 그린수소 실증단지 편</u> <u>“바람으로 만드는 그린수소!”</u></p>	
<p>🎯 <u>8화 수소안전 뮤지엄 편</u> <u>“국내 최초! 수소의 안전함을 홍보하는 수소안전 뮤지엄”</u></p>	
<p>🎯 <u>9화 창원 액화수소 편</u> <u>“수소를 액화하면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든다고?!”</u></p>	

□ 2024년 수소산업 현장 규제개선 의견 수렴 안내

- H2KOREA 기업지원실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현장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상시 진행합니다.

* [링크 바로가기](#)  클릭

수소 규제 개선사항 의견 수렴 안내

□ 개요

○ 규제혁신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현장의 제도개선 사항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 추진

- 「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간협의체*」를 통해 규제개선 신속 진행

* 주요 5개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워킹그룹 및 수소경제정책관 주재 본회의로 구성
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.0 64건('24년 37건 해결) 이외 민간협의체 57건('24년 27건 해결) 추가 발굴

□ 제안 방법

○ (접수처) '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'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접수

- 웹페이지 내 '규제개선 - 규제접수' 메뉴를 통해 지원

※ (바로가기) <https://www.h2hub.or.kr/main/info/step1.do>

○ (접수기간) 상시접수(누적 접수건 연 2회 규제개선 안전 상정 진행예정)

※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간협의체 추진절차

2	3	4	5	6	7	8	9	10	11	12
○ 신규과제 발굴(H2K) - 기업 간담회 실시 (정부인프라구축사업자,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) / 포털 상시접수										
○ 신규과제검토 · H2K-실무WG 사전검토 · 유사기업발굴	○ 1차 신규과제 확정 · 관리카드 절달 (KGS 등 인허가기관)	○ 발굴과제 검토 협의 · KGS 내부 검토 · 산업부(H2K) - 타부처 협의-검토	○ 협의 및 확정 · 타부처 협의 진행 · 전체회의 진행							
				○ 2차 신규과제 확정						
○ 개선사항 안내(차년도 1월)										

○ (문의처) 수소융합얼라이언스(H2KOREA) 기업지원실

- 정태원 선임연구원(02-6258-7460, twon@h2korea.or.kr)

- 신경철 선임연구원(02-6258-7483, kcshin@h2korea.or.kr)

- 황윤주 수석연구원(02-6258-7467, yunju117@h2korea.or.kr)